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ONLY AMERICANS BURN IN HELL

가제 : 오직 미국인만 지옥 불에 떨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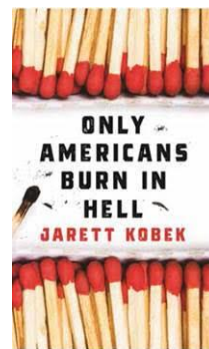
저자 : Jarett Kobek

출판사: Serpent's Tail

발행일: 2019년 4월 11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일반 소설



프랑스의 사회학자 장 보드리야르는 언젠가 허구가 실재 속으로 침투해 결국엔 허구가 실재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드리야르는 바로 이 상태를 '과도현실(Hyperreal)'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2016년 그의 이론은 현실이 되었다. 2016년 11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이다. 모든 미국인이 충격에 빠져 있던 그날 저자의 핸드폰엔 충격에 휩싸인 지인들이 보낸 메시지로 알림이 끊이질 않았고 뉴스에서는 한 백인 우월주의자가 자신의 차로 유색 인종 여성을 쳤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장 보드리야르의 말대로 허구와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 작품은 소설, 논픽션, 전기, 자서전, 대중 문화 비평, 사회 논평, 선언문 등 다양한 글쓰기 형식을 오가며 현실과 판타지를 넘나드는 실험적인 이야기이다.

저자는 이 소설의 판타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셀리아라는 불멸의 여왕이 지배하는 판타지 세계, '요정의 땅'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섬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셀리아는 다른 불멸의 여인들과 함께 그 땅에 사는 모든 남자들을 추방하거나 죽였고 마침내 여왕의 자리에 오른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그건 바로 셀리아가 미친듯이 성관계를 좋아하는 여자였다는 사실이다. 셀리아는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최고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비해 성관계와 젠더에 대해서는 꽤 보수적인 사람이었다. 셀리아가 이성애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 조금만 더 이 분야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할 줄 아는 여자였다면 진짜 원더우먼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신조를 절대 꺾지 않는 여자였고 원더우먼보다는 왕좌의 게임에 어울리는 인물이었다.

이 소설의 독특한 특징답게 이야기 중간중간에 저자의 문화 비평이 수록되어있다. 그는 영화 원더우먼과 미국 HBO 드라마인 왕좌의 게임을 비교하기 시작한다. 원더우먼은 주인공 다이아나가 여자들만의 섬을 지키겠다는 목표 하나로, 독일 군인들을 무찌르기 위해 섬을 떠나는 이야기이고 왕좌의 게임은 하나같이 불쾌한 인물들이 오직 제국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서로를 죽이는 내용이다. 저자는 두 이야기 모두 전쟁 포르노그래피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미국이 이러한 전쟁 서사에 미쳐 있는 나라라고 비판한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16년 동안 전쟁을 벌이고 있고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으로 기록될 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미국인들은 마치 이 전쟁이 실재가 아닌 것처럼 모른 채하며 여전히 전쟁 서사에 열광하고 있다.

저자는 비평을 마치고 다시 허구의 세계로 독자를 이끈다. 셀리아는 어느 날 요정의 땅 저 너머의 시공간에 살고 있는 한 영국 작가 리처드 존슨이 쓴 역사서를 읽게 되었다. 그 책은 셀리아와 하룻밤을 보낸 톰 링컨, 일명 '붉은 장미기사'에 관한 이야기였다. 존슨은 어느 날 셀리아가 난파 사고를 당한 그 붉은 장미기사와의 하룻밤의 결과로 훗날 '요정 기사'라는 이름은 얻게 된 아들을 낳았다고 책에 썼다. 이 책의 몇몇 부분은 사실이었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다. 특히 셀리아의 아들에 대한 내용과 자살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닌 판타지나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존슨은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생략했다. 그것은 바로 장미 기사와 셀리아에게 둘째 딸인 페언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페언은 날 때부터 마법의 힘을 가지고 태어난 특별한 아이였다. 페언이 태어난 이후 요정의 땅의 운명은 페언의 기분과 상태에 따라 좌지우지되었다. 페언이 행복하고 기쁠 때면 요정의 땅에 풍년이 찾아왔고 가축들도 건강히 잘 자랐다. 그러나 페언이 화나 있을 때에는 가축들이 갑자기 죽어갔고 농사도 엉망이 되었다. 사실 이 섬의 여자들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었지만 사회적 압박 때문에 결코 이 섬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페언은 누구보다도 자주 여행을 떠났고 바깥 세상에서 벌어지는 소식들과 블루레이 디스크나 잡지 같은 신문물을 요정의 땅에 가져오기 시작했다. 섬 사람들은 페언이 여행을 떠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불만을 가지지 않았다. 페언이 섬을 떠나있는 동안만큼은 그녀의 기분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될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페언이 일곱 번째 여행을 떠났을 때 그 여행이 이년을 넘어가자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점점 우울감의 늪으로 빠지기 시작했고 마법의 힘이 사라진 삶의 지독한 민낯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다. 어느 날 드디어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페언은 다음 여행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이번 목적지는 로스엔젤레스라고 말했다. 페언은 그곳은 문맹의 무슬림들을 쫓아 빠르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전쟁에 미친 나라인 미국이란 곳에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페언은 이번엔 정말 돌아오지 않았고 셀리아는 성 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텅 빈 얼굴을 들여다보며 수심에 잠겼다. 그리하여 셀리아는 경호원과 마약과 섹스에 미친 사우디 왕자를 데리고 직접 페언을 찾으러 가게 되었다. 페언이 더 넓은 세상을 보겠다고 간 미국은 그 옛날 장미 기사에게 장티푸스를 옮겼던 손 보다 더 더러운 자본주의의 손이 온 세상을 움켜쥐고 있는 곳이었다. 현실과 허구의 경계가 뒤섞여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기발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자렛 코벡은 (Jarett Kobek)은 9/11 테러범 모하메드 아타의 전기인 『ATTA』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I Hate the Internet』 등의 작품을 썼다.

제목 : SEA WIFE
가제 : 바다로 떠난 가족
저자 : Amity Gaige
출판사: Knopf Publishing Group
발행일: 2020년 4월 28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일반 소설



★ “처음부터 무언가 잘못된 가족의 항해와 삶에 대한 우화, 서정적인 문체로 세밀하게 감정을 묘사한 소설” – 『The Emperor's Children』의 저자 클레어 메수드

줄리엣은 남편의 옷장에 숨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줄리엣은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바다를 항해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있었다. 줄리엣은 남편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한 결정이 과연 잘한 짓이었는지 후회스러웠지만 이제 와서 때늦은 후회를 하는 건 마치 남편을 배신하는 일인 것만 같았다. 줄리엣은 어린 시절 그랬던 것처럼 잠시 이렇게 혼자 숨어 있을 옷장이 필요했다. 그녀의 옷장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아무리 정리해도 소용이 없는 돼지우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속으로는 들어갈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깔끔하게 잘 정리된 남편의 옷장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에 딱 편한 장소였다. 한 집에 살면서도 아내와 남편이 얼마나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지 보여주는 소설이다.

어느 평범한 날이었다. 줄리엣의 남편 마이클은 직장을 그만두고 남은 돈으로 배 한 척을 사서 온 가족이 함께 전세계의 바다를 누리며 딱 일년만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복하게만 들리지만 줄리엣은 결사 반대했다. 사실 남편의 제안이 허무맹랑하다거나 위험한 시도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줄리엣은 배 위에서조차 자신이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게 탄로날까 봐 겁이 났다. 줄리엣은 대학에서 시를 전공했고 시를 주제로 논문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산후 우울증과 고된 육아 때문에 몇 년째 끝내지 못한 논문을 그저 붙잡고 있을 뿐 개인적인 삶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어 보였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 그녀에게 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엄마가 된 그녀 앞에는 시나 예술보다 더 긴급한 일들이 늘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줄리엣은 바다로 나가서도 또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될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마이클은 진심이었고 아내 줄리엣을 설득하기 위해 영업사원이 된 마냥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줄리엣은 결국 그의 제안을 수락했다. 줄리엣은 남편이 늘어놓는 각각 낭만적인 이유들에는 관심이 없었다. 줄리엣이 남편의 계획에 동의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녀가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첫 항해를 시작한 곳은 이제 막 우기에 접어든 파나마였다. 빗줄기가 너무 강하게 쏟아져서 하늘에서도 비가 내리고 땅에서도 비가 솟구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줄리엣은 밤마다 세차게 쏟아지는 빗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터져 나오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오열했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아이들은 낯선 나라, 그것도 배에서 생활하는 일에 만족하는 것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줄리엣 역시 남편이 그녀의 이름을 따 지은 ‘줄리엣호’ 구석구석 숨겨진 작은 공간을 찾아 앉아 있는 것이 널따란 방에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편안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부부의 역할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집에 있을 때는 집안 살림을 관리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모두 줄리엣의 몫이었다. 하지만 배로 생활 터전을 옮기자 마이클이 모든 것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각종 장비를 활용에 배 안에서 필요한 것은 뭐든 똑딱 만들어 냈고 선체 수리도 직접 했다. 덕분에 줄리엣은 육지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여유를 점차 되찾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자신 있게 해내는 남편과 달리 줄리엣은 여전히 모든 일에 자신이 없었다. 같은 실수를 자꾸 반복했고 여전히 머리는 굳어 있어 시 한 구절조차 제대로 떠올릴 수가 없었다. 줄리엣은 점차 마이클과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처음 마이클을 만났을 때 줄리엣은 절대 그와 같은 남자와는 결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는 유머라고는 조금도 없는 따분한 남자였다. 하지만 그는 결혼 후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점점 재미있고 유쾌한 사람이 되어갔다. 반면에 줄리엣은 하루 종일 집에 갇혀 아이들이 혹시 다치지나 않을까 늘 마음을 졸이며 아이들에게만 집중해야 했고 늦게까지 일하는 남편이 조금이라도 빨리 집에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하루의 끝을 버텨야 했다.

줄리엣이 바다에서 다시 회한에 빠지기도 하고 새로운 도전에 설레기도 하면서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동안 마이클은 바다 위에서 시작된 삶에 대한 환희와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 그날 발견하게 된 섬들에 대한 항해 일지를 써내려 가고 있었다. 마이클은 계속해서 자신이 항해를 선택한 일에 대해 스스로 확신을 가지려고 했다. 바다에는 은퇴한 커플들, 편집증에 걸린 부자들 고양이나 도마뱀을 데리고 다니는 여행자들, 범선이나 뗏목을 타고 다니는 자유로운 영혼들이 가득했고 심지어는 태어나 육지에서는 한번도 살아 본적 없는 아이들도 있었다. 아이들은 배에서 거북이 우리들을 구경했고 다른 나라 언어를 쓰는 아이들과도 곧 잘 어울려 친구가 되었다. 마이클의 눈에는 이 항해가 가족 모두를 위한 완벽한 선택인 것만 같았다.

줄리엣의 1인칭 시점 독백과 마이클의 항해 일지가 교차 되면서 전개 되는 이 소설은 두 사람이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두 사람은 이 망망대해에서 성 역할과 육아, 결혼 생활에 대한 생각 차이를 극복하고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 한 배에 탄 두 부부의 내밀한 심리를 들여다보며 전개 되는 잔잔하고도 시적인 동시에 젠더 역할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아미티 가이지 (Amity Gaige)는 2013년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최고의 책’ 『Schroder』와 『O My Daring』 『The Folded World』의 저자이다. 2016년에는 소설 부문 구겐하임 펠로우십을 수상했다.

제목 : WHAT YOU DID
가제 : 당신이잖아
저자 : Claire McGowan
출판사: Thomas & Mercer
발행일: 2019년 8월 1일
분량 : 278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MeToo 운동 이후에도 우리에게 아직도 얼마나 갈 길이 멀었는지 보여주는 소설이다.” - 『Do No Harm』의 저자 L.V. 헤이

그날 밤 알리네 집 부엌에 있던 조디에게 제대로 걸지도 못할 정도로 만신창이가 된 카렌이 절뚝거리며 다가왔다. 카렌의 목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다리 사이에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조디는 카렌이 울먹이며 하는 말들을 듣고도 친구를 위해 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겁에 질린 채로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 누구도 이런 일 앞에서는 침착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사건 발생 몇 시간 전 오후, 알리는 곧 도착할 대학 동창 친구들인 카렌과 조디, 칼럼 부부, 빌을 기다리며 음식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역시 같은 대학에서 만나 남편이 된 마이크는 애써 알리의 마음은 진정시켜주려고 했지만 가장 친한 친구인 카렌이 예상보다 더 빨리 집에 도착한다고 하는 바람에 알리의 마음은 더 부산스러워졌다. 언론인이었던 알리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 두고 살림에만 전념하다 최근에는 강간 피해자들을 돕는 한 자선단체에서 일하고 있었고 덕분에 TV에도 몇 번 다시 출연하게 되었다. 게다가 6개월 전 켄트의 한 아름다운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완벽한 집을 꾸미느라 한숨 돌릴 새도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었다. 오늘은 드디어 그 결과물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날이었다. 알리는 오랜만에 보는 카렌을 반갑게 맞이했다. 25년 지기의 알리와 카렌은 이제는 더 이상 자주 보지도 못하고 서로의 삶도 너무나 달라졌지만 여전히 가장 친한 친구였다. 곧이어 조디와 칼럼, 빌도 도착했고 조디 부부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임신 소식을 알렸다. 싱글맘인 카렌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 형편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고 스웨덴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된 빌은 최근에 다시 솔로가 되었지만 모두들 자기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오랜만에 성사된 이 모임도 즐거운 것만 같았다.

모두들 대학시절 이야기에, 옛추억에 잠겨 거 잔뜩 술을 마시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다. 하지만 알리는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듣고 눈을 떴고 남편 마이크의 잠옷이 침대에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 한 후 부엌으로 내려갔다. 부엌에는 조디와 빌이 있었고 카렌이 절뚝거리며 부엌으로 다가가는 것이 보였다. 카렌의 뺨에는 피가 맺혀 있었고 온 몸에는 잔디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카렌을 울부짖으며 자신이 강간 당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놀란 조디는

범인이 누구인지 물었고 그 질문에 대한 카렌의 답은 그 날 이후 알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카렌이 지목한 그 범인이 바로 자신의 남편 마이크였기 때문이다. 알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을 찾기 위해 정원으로 달려나갔다. 마이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정원에 있는 그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완전히 만취 상태였고 집 안에서는 카렌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은 일제히 일어나 멍한 얼굴로 역시 얼이 빠진 어른들 사이에 서서 두 부부를 지켜보고 있었다. 오직 빌만이 침착한 태도로 경찰을 불렀다.

알리는 이 모든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수가 없었다. 마이크와 카렌은 대학에서 처음 만나 이십 년 넘게 친구로 지낸 사이였다. 알리는 자기 남편이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카렌의 목에는 분명 멍 자국이 있었고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만은 분명했다. 곧 경찰이 도착했고 알리는 아직 취기가 남아있는 사람들 속에 서서 여기 있는 모두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996년, 마르타 래스비가 죽은 그 날밤 느꼈던 혼란과 공포, 죄책감이 다시 알리를 사로잡고 있었다. 조사를 받게 된 알리는 자신이 친구가 당한 일보다는 남편과 자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더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알리는 자기도 모르게 경찰들 앞에서 싱글맘인 카렌을 부정한 여자로 묘사했고 이 사건 때문에 성폭행 피해자를 돕고 있는 자신의 일과 명성에 오점이 생기는 것 또한 피하고 싶었다.

경찰서에서 남편을 만난 알리는 그에게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물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모임 전 회사에서 카렌을 따로 만났고 카렌이 먼저 유혹하자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이크는 카렌이 더 이상 다가오는 것을 거부했고 이 때문에 카렌이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벌인 것 같다고 고백했다. 마이크는 자신은 결백하지만 혹시 일이 잘못 될 것을 대비해 경찰에게 자신의 입장이 유리해지도록 거짓 진술이라고 해달라고 부탁했다. 알리는 이 상황이 전혀 낯설지 않았다. 알리는 남편에게 대학 시절 쿼트로 이름을 날렸던 마르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때도 알리는 마이크를 위해 거짓 진술을 했던 것이다. 마이크는 마르타의 죽음과도 카렌의 일과도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알리는 깨름칙한 이 기시감을 떨쳐 낼 수 없었다.

알리는 곧 카렌과 단 한 번 관계를 가졌다는 마이크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카렌은 마이크와 대학 시절 내내 잠자리를 가졌고 알리와 마이크가 결혼 한 뒤에도 그 관계는 계속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알리는 가장 친한 친구인 카렌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남편의 결백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계속 되는 반전과 친구라고 믿었던 모든 이들의 뒤틀린 욕망과 거짓말들이 드러나면서 벌어지는 스릴러이다.

<저자 소개>

클레어 맥고언(Claire McGowan)은 『The Fall』과 『the Paula Maguire』 시리즈 등의 저자이며 2015년 작 『Silent Dead』는 영국 더 타임즈의 올해의 책 중 하나로 선정 되었다.

제목 : NEVER GREENE

가제 :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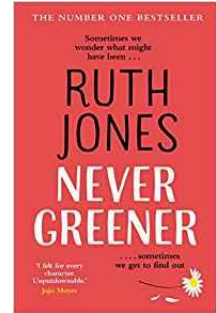
저자 : Ruth Jones

출판사: Black Swan

발행일: 2019년 5월 30일

분량 : 544 페이지

장르 : 로맨스



***"루스 존스는 인간의 본성과 인간이 왜 실수를 저지르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묘사했다." -
베스트 셀러 『Me Before You』의 저자, 조조 모예스**

1985년 여름, 서른 후반의 학교 교사인 칼럼은 형의 펴에서 일손을 도와주고 있었다. 그는 곧 아내 뱃속에 있는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 세 아이의 아버지가 될 터였지만 그는 나이에 비해 훨씬 젊어 보였고 여전히 매력적인 남자였다. 그리고 마침, 당시 스물 두 살이었던 배우 지망생 케이트는 여름 동안 이 펴에서 일하게 되었다. 둘의 운명적인 만남은 바로 이 곳에서 시작되었다.

칼럼은 아이들과 집을 나서는 아내 벨린다를 바라보며 케이트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보다 열일곱 살이나 어린 케이트는 아직 솜사탕을 좋아했고 숨막히게 아름다운 여자였다. 안락하고 안전했던 칼럼의 삶 속으로 케이트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케이트가 처음 형의 펴으로 일하러 왔던 그 날 둘은 서로를 알게 된 지 겨우 다섯 시간 만에 해변에서 격정적인 사랑을 나누었다. 케이트를 시내로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칼럼은 아내에게 새벽까지 뭘 하다가 이제야 집에 왔는지 핑계거리를 만들어야 했다. 칼럼은 그 후로 더 이상 모범적인 남편이 아니었다. 칼럼은 끝내 그녀를 마음 속에서 지우지 못했다.

17년 후 2002년, 케이트는 이제 더 이상 철부지 배우 지망생이 아닌 영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톱 여배우가 되어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는 믿음직한 남편 맏과 다섯 살짜리 딸 탈룰라도 있었다. 케이트는 늘 사랑에 목말라 있었고 때론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누구보다 큰 야심을 가진 사람이었고 자신의 인생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 다 해치워버렸다. 그녀는 새벽 세시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고 몸매 관리를 위해 운동에 전념했고 남편이 저체중이 얼마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아무리 설명해도 케이트는 차라리 굶주림에 시달리며 사는 것을 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케이트는 고향 에딘버러에 있는 자신의 모교에 방문하게 되었다. 케이트는 에딘버러라면 치를 떨 정도 오랫동안 그곳을 방문하는 일을 피해왔다. 하지만 술에 취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정신이 없어서 그랬던 것인지 케이트는 자기도 모르게 덤석 그 일정을 수락해버렸던 것이다. 학교에 도착한 케이트는 교장과 함께 학교 내부를 둘러 보다가 한 교실에 붙어 있는 이름표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그 이름의 주인공이 바로 17년 전 그녀가 한때 미친 듯이 사랑했던 남자 칼럼 맥그레고르였기 때문이었다. 교장은 이제 그 학교의 교감이

된 칼럼의 사무실로 케이트를 안내했다. 케이트는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은 채로 서있었고 칼럼은 전혀 놀랍지 않다는 듯이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곧 속이라도 게워낼 것처럼 뱃속이 뒤틀렸지만 훌륭한 연기자답게 아이들의 질문 하나 하나에 재치 있게 대답했다. 하지만 여전히 칼럼의 얼굴만은 똑바로 바라 볼 수가 없었다. 학생들과의 시간이 끝나고 케이트는 담배라도 피우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화장실에 가면서 칼럼과 비밀스럽고도 뜨거운 정사를 나누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애써 그 모든 순간들을 그저 젊은 때의 일탈로 치부하고 싶었지만 칼럼을 다시 만난 그 순간 완전히 꺼져버렸다고 생각했던 불씨가 다시 자신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한편 칼럼은 이미 몇 주전부터 케이트가 이 학교를 방문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교직원들은 모두 들떠서 매일 같이 그녀에 대해 이야기 했고 그때마다 칼럼은 아무런 관심도 없는 척을 하기 위해 애썼다. 그는 케이트가 교실로 들어와 자신과 마주할 모습을 상상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그녀를 대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 하지만 17년 전 그 일들이 마치 불과 몇 주전에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다.

케이트는 아이들에 둘러 싸여 교장과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수많은 군중 속에서 칼럼의 얼굴을 찾고 있었다. 칼럼은 한 손에는 차 키를 쥐고 한 손에는 책을 가득 안고 있었고 둘의 눈이 마침내 다시 마주치게 되었다. 택시에 탄 케이트는 눈물이 터지는 것을 참지 못했고 그 택시에서 내려 곧 바로 칼럼의 차 뒷좌석에 올라 탔다. 칼럼은 그녀의 돌발 행동에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결국 케이트를 태우고 에딘버러 공항까지 갔다. 이미 케이트는 기차를 놓친 상태였고 공항 주차장 근처가 더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 좋은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세월의 흔적이 남은 칼럼의 얼굴은 그 이전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고 케이트는 그 얼굴을 다시 만져 보고 싶었다. 둘은 애써 거리를 두고 평범한 안부 정도만 묻고 싶었지만 점차 오랫동안 속에 담고 살았던 말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케이트는 칼럼에게 키스하려고 했지만 그는 매몰차게 케이트를 밀쳐냈다. 하지만 칼럼은 눈물 삼키며 남편과 통화하는 케이트를 바라보며 더 이상 그녀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항 근처 한 호텔에 들어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다 몇 마디만 주고 받았고 이내 케이트가 먼저 호텔을 나섰다. 공항에 도착한 케이트는 또 다시 운명의 장난이 시작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목적지로 가는 비행기 표가 단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17년 만에 다시 만난 케이트와 칼럼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 둘은 다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그들은 과거에 어쩔 수 없이 잃어버려야만 했던 것들을 다시 찾고 싶은 욕망에 눈이 멀어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의 아름다움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선택과 운명, 믿음에 관한 두 남녀의 엇갈린 사랑 이야기이다.

<저자 소개>

루스 존스 (Ruth Jones)는 BBC와 Sky의 히트작 드라마를 쓴 각본가이다. 『Never Greener』 는 그녀의 첫 소설 데뷔작이다.

NON-FICTION

제목 : BOUNCE BACK

가제 : 험난한 직장 생활, 오독이가 되는 법: 어떻게 하면 빨리 실패하고 빨리 회복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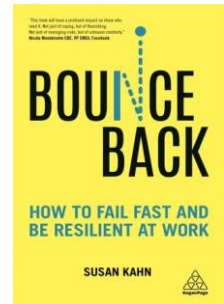
저자 : Susan Kahn

출판사: Kogan Page

발행일: 288 페이지

분량 : 2019년 10월 3일

장르 : 자기계발



*** “우리 모두는 실패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할 지다. 나 역시 여전히 실패하겠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다시 내자리로 돌아 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 영국 더 타임즈지의 전 수석 편집장, 다니엘 핑켈슈타인**

직장은 우리에게 적절한 보상과 성취감을 안겨 주는 곳이다. 하지만 동시에 직장이란 우리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고 자신이 가진 능력에 대해 한번쯤 의문을 갖게 만드는 고단한 곳이기도 하다. 또한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한 번 실패하면 결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슬럼프에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실패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법이다. 비즈니스 전문 심리상담사인 저자 수잔 칸은 바로 이러한 이유로 직장인들이라면 언제든지 실패 감에서 재빨리 벗어나 다시 도약하는 법 즉, 회복력을 갖추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의 원제 (Bounce Back)은 ‘다시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resilio’에서 유래한 것이다. ‘Bounce Back’은 힘든 일을 겪고 난 후에도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오는 능력 혹은 다시 회복하는 능력을 뜻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회복력이란 우리가 겪었던 시련이나 고통을 무시하거나 망각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도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하지만 일반사원이든 팀의 리더이든 직책과 관계 없이 이 능력을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다행히도 수잔 칸의 주장처럼 누구나 이 능력을 개발시키고 발전 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회복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조금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저자는 뛰어난 회복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빨리 실패를 경험해보라고 조언한다. 사람들은 실패라는 단어를 자체를 패배감과 연관 지어 너무 무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실패야말로 우리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직장에서 내가 가진 시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또한 우리는 이 실패 속에서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나가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위험을 감수하고 더 빨리 실패하고 더 빨리 도전할

수록 더 나은 곳으로 올라갈 발판을 마련 할 수 있다. 저자는 실패를 통해 실패에 맞서는 회복력을 기르고 닥쳐올 미래의 위기를 대비한 전략을 개발하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실패에 대처하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넘어서서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본다. 회복력은 단순히 마음가짐만으로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뇌, 정신, 몸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회복력은 인류의 진화과정과 스트레스가 심할 수 밖에 없는 현대인의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드러나는 생존 본능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보듬는 능력과 같은 인간이 가진 동물적인 감각들, 심지어는 수면의 질까지도 우리의 회복력에 영향을 미친다. 저자는 또한 우리 정체성에 숨겨진 부분이 우리의 행동이 발현 되는데 어떤 작용을 하는지 살펴본다. 결국 실패에 대응하는 현명한 방법이란 자신의 내면과 우리를 둘러싼 외부 세계를 이해하고, 극심한 고통과 불안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내밀한 이해를 통해 실패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직장 생활 내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법, 실패를 자산으로 바꾸는 전략을 가르쳐 주는 실용적인 안내서이자 심도 있는 이론서이다.

<목차>

머리말

제1장. 빨리 실패해보기

-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
- 업무의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실패의 의미
- 낙천주의와 희망 그리고 회복력
- 빨리 실패하고 빨리 배워라
- 금욕주의적인 게임을 해보라, 더 나빠질게 뭐가 있을까?
- 자기 연민
- 실천해보기
- 주석

제2장. 뇌와 몸

- 근원으로 돌아가기
- 뇌

(이해 생략, 총 8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수잔 칸 (Susan Kahn) 박사는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고객들이 효과적인 리더십 스타일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심리 상담 코치이자 비즈니스 전문 컨설턴트이다. 또한 런던 대학교에서 조직심리학을 가르치는 강사이자 스쿨 오브 라이프의 교사진이기도 하다.

제목 : ROOTBOUND

가제 : 삶의 뿌리,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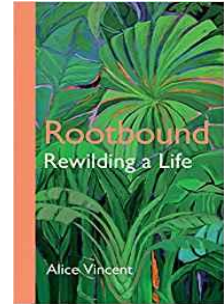
저자 : Alice Vincent

출판사: Canongate Books

발행일: 2020년 1월 30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에세이



*** 집안에서 식물을 키우며 저자가 경험한 놀라운 초록의 힘에 관한 에세이**

영국 더 텔레그래프지 예술 지면 선임 기자인 저자 앨리스 빈센트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손수 가꾸던 정원을 너무나 사랑했다. 저자는 그곳에서 진정한 자유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 후 이십 년 뒤, 런던 남부 작은 아파트에서 살게 된 저자에게 어린 시절 보았던 그 아름다운 정원은 어느 새 꿈에서나 볼 법한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책은 저자가 도시 속 작은 정원을 가꾸며 다시 느끼게 된 인생의 충만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에세이다.

십대 시절,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란 저자는 언젠가는 그 좁은 곳을 벗어나야겠다고 다짐했었다. 저자는 뽕뽕 달리는 자동차가 달리는 길에서 위험조차 잊어버리고 흥청망청 런던의 길을 누비는, 그런 도시 생활을 열망했었다. 어린 시절 작은 마을 위로 펼쳐진 하늘은 너무나 좁아 보였고 마을 전체를 감싼 그 고요는 지루하기만 했다.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은 하루라도 빨리 직업적 소명을 찾고 어른이 되면 반드시 내세울만한 직함을 가져야 한다고 마을 어린이들을 재촉하곤 했다. 저자 역시 마을의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어른들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아이였고 어른이 되면 무엇을 해야 할까 마음이 조급하던 차에 우연히 언론인들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생각을 모두가 볼 수 있는 글로 옮기고 싶다는 꿈을 안고 마침내 그 작은 마을을 벗어나 언제나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찬 도시로 떠나게 되었다. 그 후 오랫동안 저자는 식물들을 향한 애정도, 때에 맞춰 바뀌는 계절에 대한 감탄도 다 잊고 살았다. 다른 수백만 명의 영국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저자 역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더 큰 도시 런던으로 가게 되었다. 런던은 끊임 없이 변화하는 도시였고 도시에 가득한 소음과 익명성은 저자에게 위안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도시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닮아가는 곳이었고 어느 순간 숨이 막히기 시작했다. 도시는 단 한 순간도 숨을 고르고 성찰할 시간이 없는 곳이었다. 도시의 삶은 사람들을 경쟁 속으로 떠밀었고 날마다 직장과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불안한 곳이었다. 사람들은 점점 그들을 둘러 싸고 있는 초록 생물들로부터 멀어져 갔고 풀 한 포기 이름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저자 역시 녹지가 가진 힘과 그들이 인간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 되어갔다.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었던 도시 속 공원이 가진 힘은 상상 이상이었다. 산업 혁명 이후 영국 정부는 산업화로 인한 공해와 스모그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 곳곳에 공원을 만들었다. 그들음으로 병들어가던 도시는 이 공원들 덕분에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이 후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생기와 활력을 잃어 버린 도시의 아이들을 위한 해결책 또한 바로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조성 된 공원이었다.

어느새 대도시의 이방인으로서 사무치는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한 그녀 역시 초록 식물들에서 위안을 찾고 싶었다. 정원을 가꾸어 본 경험도, 정원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었던 저자는 일단 집안 곳곳에 공간을 마련하고 씨앗을 심기 시작했다. 햇빛이 드는 창문턱과 배수 보드에 화분과 덩굴을 키웠고 그녀의 집은 녹색 공간으로 새롭게 변해갔다. 활짝 핀 꽃과 새싹 앞은 도시 속 작은 그녀만의 공간을 마침내 안락한 집으로 변신시켰다. 집안의 식물들의 가진 야생성과 생기는 그녀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생애 대한 감각을 일 깨우고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잔잔하고 평온한 문체로 식물들의 일상과 식물을 키우며 저자의 내면에 나타나는 변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름다운 에세이이다.

<저자 소개>

앨리스 빈센트 (Alice Vincent)는 영국 더 텔레그래프의 기자이다. 2014년부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원 가꾸기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고 이에 관한 칼럼 연재를 시작했다. 정원과 관련된 유튜브 채널 또한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첫 책인 『How To Grow Stuff』를 출간한 바 있다.

제목 : WHAT YOU MUST KNOW ABOUT DRY EYE

가제 : 안구 건조증에 대한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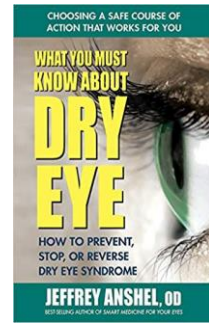
저자 : Jeffrey R. Anshel

출판사: Square One Publishers

발행일: 2019년 9월 25일

분량 : 192 페이지

장르 : 건강



★ " 각종 질환, 과도한 컴퓨터 사용, 호르몬 등 다양한 원인 때문에 발생 하는 안구 건조증을 극복 하기 위한 의학적 치료, 식단, 보충제를 포함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책. " - 「에너지 타임즈 매거진」

우리의 눈은 늘 지쳐 있다. 잦은 컴퓨터 사용과 늦은 밤 침대에서까지 스마트 폰을 들여다보느라 우리의 눈은 쉴 새가 없다. 이처럼 눈은 우리 몸의 장기 중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안구 건강에 대해 너무나 당연시 하는 경향이 있다. 이 책은 지금 눈에 문제가 있거나 눈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한 책이 될 것이다.

안과 의사이자 이 책의 저자인 제프리 안셀은 먼저 우리에게 눈물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는다. 눈물은 단지 우리의 아픈 마음과 슬픔을 표현하는 수단이 아니다. 눈물은 눈의 건강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 하지만 눈물에 대한 국제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고작 몇 십 년밖에 되지 않았다. 지난 연구를 통해 학자들은 눈의 전면을 덮고 있는 눈물 막의 구성 성분과 조절 방식을 밝혀내는 데 집중했다. 연구 결과, 눈물막이 각막 및 결막의 형태를 보존하고 해로운 미생물로부터 안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시각적 선명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연구는 눈물 막 변형 때문에 발생하는 안구 건조증, 각막염 등 전세계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질병에 대한 연구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현대인에게 가장 흔한 안구 질환인 안구 건조증은 흔히 사람들이 사소하게 여기는 질환 중 하나이지만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면 엄청난 불편함과 더 나아 통증까지 생길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밤에 눈이 극심하게 피곤하거나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나 운전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건강한 눈에는 윤활제 역할을 하는 눈물이 돔 모양으로 된 눈 바깥쪽을 계속 씻어내는 활동이 활발히 나타난다. 이 눈물은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여 눈의 편안함을 유지하며 눈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눈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그러나 이 눈물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 경우 안구 건조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안구 건조증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먼저 1 부는 눈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설명하는 이야기로 시작 된다. 그런 다음 안구 건조증의

증상, 원인, 안구 건조증이 시력에 미치는 영향 및 진단 방법에 중점을 둔다. 2 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안구 건조증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처방전 없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인공 눈물부터 처방약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치료법에 대해 살펴본 뒤 독자들이 스스로 안구 건조증 완화 위해 실천 해볼 수 있는 식단, 보충제 섭취에 대해 알려준다. 안구 건조증을 앓고 있는 환자라면 누구나 그 사소한 장애가 우리의 사소한 기분과 컨디션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 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중요한 눈과 눈물의 기능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안구 건조증을 완화하고 눈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실용적인 의학서이다.

<목차 소개>

1 부. 안구 건조증에 대한 기본 지식

- 1 장. 안구에 대한 기초 지식
- 2 장. 안구 건조증이란 무엇인가?
- 3 장. 안구 건조증의 다양한 원인들
- 4 장. 안구 건조증 자가 진단.

2 부. 안구 건조증 치료

- 5 장. 약물 치료
- 6 장. 영양학적인 접근
- 7 장. 안구 건조증을 위한 식단과 보충제
- 8 장. 물건들을 앞이 잘 보이도록 배치하기

<저자 소개>

제프리 R. 안셀 (Jeffrey R. Anshel)은 일리노이 감안 대학에서 시각 과학 학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수료했다. 미 해군에서 의사로 복무한 후 개인 진료를 시작했으며 환자들에게 눈 건강을 위한 영양 요법, 대체 요법들을 소개했다. 또한 전세계에서 강연을 진행하고 있으며 『Smart Medicine for Your Eyes』, 『What You Must Know About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등 시력 관리에 관한 여섯 권의 책을 썼다

제목 : ONE HOUR INVESTOR

가제 : 한 시간 만에 투자자가 되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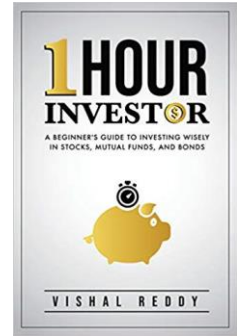
저자 : Vishal Reddy

출판사: TCK Publishing

발행일: 2019년 5월 10일

분량 : 109 페이지

장르 : 경제



*** 여러 투자서들을 섭렵하던 미스터리 소설 작가가 더 간단하고 명확한 투자서를 쓰기 위해 집필한 책**

부자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건 바로 돈을 굴리는 법과 투자하는 법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모아 마침내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주식'하면 겁부터 먹는다. 단지 요즘 사람들이 주식의 안정성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있어서가 아니라 별 정보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식 시장에 진입하는 장벽 자체가 높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 비살 레디는 이제 막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썼다. 또한 기본적인 경제 개념과 관련된 용어들은 물론 장기적인 주식 투자와 관련 된 풍성한 정보를 제공한다.

저자는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바로 시간이라고 말한다. 각 투자자들에게는 자신만의 시간표와 원하는 결과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을 정복하기 위한 로드맵을 짠다. 이 시점에서 강력한 재무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의 가치를 이해하는 능력이다. 앞으로 발생할 지출을 포기할 의지가 있는 사람은 그 기다림에 대한 보상으로 수익을 얻게 된다. 1,000 달러를 가진 투자자는 3 %의 예금 증서에 돈을 투자 할 수 있고 1 년 안에 1,030.00 달러를 벌 수 있다. 이 사람은 다시 그 1,030 달러를 3 %의 예금 증서로 3 년 더 돈을 모아두고 365 일 후에는 1,060.90 달러를 계좌에서 찾게 될 것이다. 재무 설계사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전 수익에 대한 수익을 거두는 방법을 "복리"라고 부른다. 바로 시간이 돈의 몸집을 불리고 우리에게 재정적인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투자자라면 기업부문의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식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를 창출하기 위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해당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주식 투자에 훨씬 도움이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 회사의 장기적인 수익성과 생존 가능성 및 주식의 성과를 평가하려면 회사의 재무 및 경영 상태를 철저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기업 환경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바로 재무제표이다. 대차 대조표에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이용해 계산한 조직의 자산과 부채 상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자산 = 부채 + 소유자의 지분'. 투자자는 손익 계산서를 통해 회사 활동과 관련된 수익 및 비용을 기준으로 기업이 가진 수익성을 판단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현금 흐름표에는 운영, 투자 및 자금 조달과 관련된 자금의 출처 및 이동 상황이 나타나있다. 바로 이러한 자료를 통해 회사의 장기적 재무 안전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저자는 인생의 바닥에서 투자를 결심한 우리 같은 사람은 재정적 자유와 독립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돈을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 또한 결국 우리의 몫이라고 말한다. 젊은 세대기 투자자나 은퇴 후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 실제로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었지만 좀 더 이해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투자 전략 및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책이다.

<목차>

머리말

제1장: 투자에 대해 알아야 하는 모든 것

제2장: 기초 재무 개념 적용 해보기

제3장: 주식

제4장: 수급분석법 VS 기술적분석법

제5장: 채권

제6장: 유추얼 펀드

제7장: 상장지수펀드

제8장: 순서형

제9장: 투자세

(이하 생략, 총 12장 및 추가 정보 부록으로 구성)

<저자 소개>

저자 비살 레디 (Vishal Reddy)는 원래 『Higher Ground』, 『Take Five』와 같은 미스터리 소설 작가이지만 시중에 나온 투자 관련 책들을 보고 더 간단하고 핵심적인 정보가 담긴 투자 가이드 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직접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제목 : THE GREEKS

가제 : 그리스인들의 역사가 곧 세계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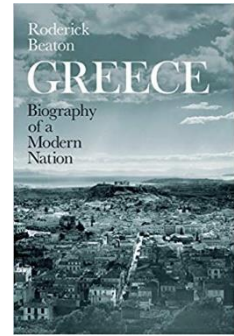
저자 : Roderick Beaton

출판사: Allen Lane(UK), University of Chicago Press(US)

발행일: 2019년 3월 7일(UK), 10월 16일(US)

분량 : 496 페이지

장르 : 역사



*현대 경제, 정치, 문화, 예술의 토대를 만든 그리스인들에 대해 알아보는 역사서

그리스 문학 및 역사 전문가인 로데릭 비튼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이야기를 들려준다. 하지만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동시에 가장 현대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다. 3 천년전 탄생한 그리스어가 아직도 사어가 아니라 생생히 살아 있는 언어인 것처럼 말이다. 또한 그리스는 키프로스 공화국을 포함해 유럽 연합국 중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진 두 회원국이며 전세계에는 수많은 그리스인 공동체가 자리를 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현대 문명의 토대와 예술, 과학, 정치 개념이 시작된 곳 역시 그리스이다. 그 이후로도 수세기에 걸쳐 오래 전 이 세상을 떠난 그리스 현자들 뿐 아니라 살아 있는 그리스인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화 된 오늘날의 세상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했다.

오늘날의 그리스는 비록 경제 위기와 키프로스와 영토 문제로 시련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스인들은 과거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그리스 공동체는 전세계 다섯 개 대륙에서 여전히 활발히 번성하고 있다. 뉴욕 퀸즈의 자치구인 아스토리아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 이민자들이 사는 지역일 것이다. 또한 1960 년대 이후 아테네와 살로니카 다름으로 가장 많은 그리스인들이 사는 지역은 바로 호주 멜버른이다. 이처럼 우리는 전세계 어디를 가든 그리스의 대표 음식인 우조와 무사카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평범한 슈퍼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그리스 칼라마타 산의 올리브유와 그릭 요거트 또한 그리스 대표 음식이다. 뿐만 아니라 당장 집안만 살짝 둘러보아도 수입 제품 중 5 분의 1 의 확률로 그리스 제품이 있을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이미 생명이 다한 줄만 알았던 고대 유적들의 도시 그리스가 우리 생활과 여전히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지 알려준다.

저자는 그 단적인 예로 영어만큼이나 세계화된 언어인 그리스어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우리가 매일 뉴스나 책에서 듣는 현대 정치 용어부터 시작해 과학, 의학 및 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고대 그리스가 남긴 유산은 전 세계인의 일상 속에서 생생히 살아 있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이렇듯 이 책에서 주로 그리스인들이 어떻게 외부인들과 상호작용을 해왔는지 집중한다. 그리스인들의 지혜와 철학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전세계로 뻗어 나갔다. 저자가 이 책의 부제를 과감히 '세계사'라고 지은 것 또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그리스인들이란 그리스의 초기 번영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리스어를 쓰는 화자들을 의미한다. 이 긴 시간 동안 그리스어를 사용한 사람들은 유럽의 남동부와 지중해 동부 뿐만 아니라 다른 시대, 다른 지역에도 존재했었다. 수세기에 걸쳐 그들은 서로 다른 유형의 정치적 시스템을 만들었고 다른 방식의 사회적 토대를 일구며 살아왔다. 심지어 이들은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다른 이름으로 자신들을 칭했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인들의 흥미로운 삶과 역사를 추적해보는 책이다. 그리스인은 누구였고 또한 누구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책이다.

<목차 소개>

제 1 장. 전설 중의 전설: 최초의 그리스인들

제 2 장. 우리의 세계가 아닌 ‘호머의 세계’

제 3 장. 정치의 발명

제 4 장. 인류 최초의 세계 대전

제 5 장. 문화의 성지

제 6 장. 땅 끝까지: 알렉산더 대왕과 그 이후

제 7 장. 로마의 평화

제 8 장. 세계 종교 설립

(총 12 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로데릭 비튼 (Roderick Beaton)은 킹스 칼리지의 현대 그리스 및 비잔틴 역사, 언어 및 문학 교수이자 영국 아카데미 (FBA)의 연구원이다. 저서인 『George Sereris: Waiting for the Angel: A Biography』 『An Introduction to Modern Greek Literature』 『Byron's War: Romantic Rebellion and Greek Revolution』으로 런시맨 어워드 (Runciman Award)에서 세 번이나 수상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제목 : THE FIX: Overcome the Invisible Barriers That are Holding Women Back at Work

가제 : 유리 천장: 여자들의 성공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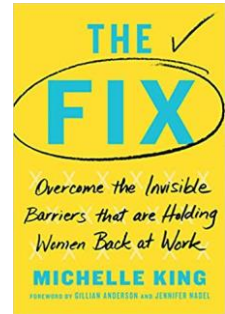
저자 : Michelle King

출판사: Atria Books

발행일: 2020년 3월 3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여자들이 승진에서 밀려나는 가장 큰 이유로 성차별적인 직장 환경 자체의 폐해를 지적하는 책.**

너무나 오랫동안 세상은 직장에서 성공한 여성이 되고 싶다면 여성들 자신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말해왔다. 여자들이 협상할 때도 남자처럼, 행동도 남자처럼 쿨하게 하지 않으면 결코 사무실에서 구석 자리 하나도 차지 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말이다. 하지만 16 년 동안 포춘지 선정 500 대 기업에서 성 평등 전문가로 일한 저자 미셸킹은 이 모든 이야기들이 얼토당토않은 헛소리이며 여자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자는 다년간 민간 분야에서 리더십 전문가로 일하면서 수많은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워크숍, 사교모임 행사 및 무의식적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강의들을 진행했다. 이러한 행사들은 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성평등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채택한 일들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기업인들과 간부들이 이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한 이유는 애초부터 여성은 한 기업의 리더가 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여성들은 제대로 인적망을 구축하는 방법도 모르는 데다 추진력도 없고 동료들의 사기를 북돋아 줄만한 배포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여자들이 승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자들 자신에게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고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 여자들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다.

당시 많은 기업체에서 리더 자리에 여성들을 고용하겠다고 했지만 화려한 슬로건과는 달리 여성들이 잠시나마 차지 했던 자리는 얼마 가지 않아 다시 남성들의 자리로 채워졌다. 그리고 다시 성공하고 싶은 여성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와 관련 된 자기계발서, 처세서 등이 서점에 쏟아지기 시작했다. 여성들 역시 스스로의 가치를 폄하하게 되었고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들의 능력 부족이니 스스로를 고치면 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정말 여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

저자는 집요한 연구와 자신의 고객들의 사례를 통해 여자들에게 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직장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즉, 직장 환경자체가 너무나 남성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조직은 무의식적으로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오직 일만 하면 되는 이성애자, 백인 남성의 모습을 "이상적인 일꾼"의 표본으로 삼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은 자연스럽게 여성들의 커리어를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들을 만들어

냈고 바로 이 장벽들 때문에 여성들은 항상 승진을 앞에 두고도 뒤로 밀려나야 했다. 남성들과 달리 여성들은 흔히 아이를 돌보거나 가족 중 나이가 많은 환자들을 간호해야 하는 압박감과 남성들의 논리에 따라 돌아가는 직장 세계의 한 리더로서 균형을 잡느라 고군분투 해야 했다. 직장에서 여자가 너무 말을 잘하면 동료들은 그녀를 강압적인 사람이라고 몰아갔고 당당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여자는 까다로운 여자라고 여겼다. 여성들은 아무리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는데 공을 들여도 남자만큼 승진 기회를 얻지 못했다. 남성들의 세상에서 여성은 결코 이상적인 직원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여성들은 동료 남성들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승진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모든 경력 단계에 있는 여성 직업인에게 성차별적인 직장 환경에서 변화를 위해 싸우고 직업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을 제시한다.

<목차>

머리말: 여자인 게 문제 아니라, 일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제1부: 인식

제1장: 누가 직장 생활을 망치고 있는 것일까?

제2장: 젠더 거부 현상

제3장: 직장 내 특권: 젠더 거부현상이 어떻게 불평등을 일으키는가?

제4장: 이건 사다리가 아니라 길이야: 직장 환경에 대해 살펴보기

제2부: 이해

제5장: 성취단계: 졸업부터 관리자가 되기까지 보이지 않는 여섯 가지 장벽들

제6장: 인내단계: 관리 능력과 모성 사이의 균형 맞추기

제7장: 기여단계: 여성리더들이 직면하게 될 여섯 가지 장벽들

제3부: 행동

제8장: 마초남과 결별하기: 왜 여자만큼 남자에게도 젠더 평등이 더 필요할까?

제9장: 평등: 리더십을 위한 바람

제10장: 여긴 우리 모두의 직장이다. 우리의 미래가 달린 이 곳을 고쳐보자

<저자 소개>

미셸 킹 (Michelle King)은 젠더의식 조직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전문가이자 연설자, 연구원, 작가이다. 또한 UN 여성 글로벌 혁신 연합 책임자로서 젠더 혁신 원칙, 글로벌 혁신 프로그램, 남아프리카의 4Good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30 개가 넘는 민간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다.

JUVENILE TITLES